

### ‘구자 진언’을 배자해 세인에게 축복을 전하다

‘파룬따파 하오’, ‘쩐싼런 하오’를 성심껏 념해 복을 받은 신기한 사례는 아주 많다.



▲ 5400 명의 대만 파룬궁수련생들이 자유 광장에서 ‘구자 진언’을 배자했다.

금년에 70 세인 황여사는 평생 처음 파룬궁수련생의 배자를 관람했다. 선과 상서로움을 느낀 그는 “나는 파룬궁수련생이 주는 따스함과 뭉쳐진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5일, 대만 각 지역에서 모인 약 5400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대북시 중정기념당의 자유 광장에서 ‘구자 진언’: ‘파룬따파 하오 (法輪大法好)’, ‘쩐싼런 하오 (真善忍好)’라는 9개 한자를 배자했다. 유람객들은 “너무 성대하다, 너무 장관이다, 너무 신기하다!” 라고 칭찬했다.

인도유람객 Sankalp Verma는 “(중공)은 무엇 때문에 자신과 사회 기타사람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박해 하는가? 이

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나는 박해받아 감옥에 감금된 사람들이 빨리 석방되기를 희망한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히 현재 도덕이 하락되는 상황에서 더욱 신앙이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1999년 7월 20일, 중공 강택민 집단은 ‘진선인 (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파룬궁에 대해 모독과 비방을 했다. 하지만 신앙의 힘은 무궁하다. 현재 파룬궁은 이미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져 1억이 넘는 사람이 파룬궁수련을 통해 신심의 혜택을 얻었다.

파룬따파가 대만에 흥전되어 대만인에게도 복지를 주었다. 대만은 전세계에서 방역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는 신앙을 존

중한 것과 직접 연관된다.

대만 파룬궁 인권변호사 단체 발언인 주완치 (朱婉琪)는 말했다. 오늘 대만 파룬궁수련생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한쪽의 ‘구자 진언’을 세상의 모든 인연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이 세계를 축복합니다, 특히 전염병이 창궐한 국가와 지역에 축복을 드립니다. 위험한 시각, 전세계 파룬궁수련생은 ‘구자 진언’이 사람을 구원하는 법보 (法寶)를 세계 각곳에 전하여 무한 폐렴에 확진된 많은 사람더러 치료와 개선에 신기한 효과를 얻게 했습니다. 신기한 예제는 동서방에서도 수도룩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구자 진언’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성심으로 념할때 마음에서 선념이 생겨 우주의 정 (正) 에너지를 얻게 되어 외부의 사 (邪)는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나와 함께 배자에 참가한 천스민 (陳世甯)은 경찰 관이다. 그가 경찰직에서 마음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그의 누나는 파룬궁의 주요서적 <전법륜 (轉法輪)>을 그에게 보여 주었다. 두세번 보고나서 그는 다시는 이책을 내려 놓을 수 없었다. 그는 말했다: <전법륜 (轉法輪)>을 본후 사상이 승화되면서 마음이 환해지고 신체도 건강해 졌습니다. 책에서 가르쳐 준대로 ‘진선인 (真善忍)’의 표준으로 행동하니 일체는 좋게 변해지기 시작 했습니다.

대기원



# “우리의 대선 표는 해외에 보내지고, 기타국에 보내졌는가?”

편집자의 말 : 2020 년 미국대선은 미국의 아버지들이 지켜낸 미국의 기본 - 신앙, 자유, 공화에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전제 사회로 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부정선거가 천하에 드러나지 못한다면 중국의 오늘은 곧 미국의 내일이 될 것이다.

미국과 세계는 십자로에 서 있다. 이는 정(正)과 사(邪), 선과 악의 전쟁이며, 광명과 암흑의 대결이다. 매개인이 모두 내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우리 모두 다함께 이 한단락의 역사를 견증하여 자신과 인류를 위해 광명한 미래를 선택하자. 하늘이 캄캄해도 창세주가 이를 밝게 비추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 11 월 19 일, 트럼프 캠프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중에게 대규모의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출했다. 변호사 줄리아니는 “이번 부정선거는 중앙에서 공제하고, 중앙에서 계획하고, 각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트럼프 캠프 기자회견: 중앙에서 공제한 대규모적인 선거 사기

11 월 19 일, 트럼프 캠프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트럼프 개인변호사 줄리아니, 제나 엘리스, 유명한 대변호사 시드니 파웰은 공중에게 대규모적인 부정선거의 중요한 증거를 제출했다. 그리고 9 가지 영역에서 소송을 제기해 바이든 집단의 부정선거를 폭로했다.

그전 줄리아니는 인터뷰에서 미국 28 개 주의 대선 표 수치는 독일과 스페인으로 발송해 베네수엘라의 스마트텍 회사에서 계표됐다고 지적했다. “도미니언(Dominion)에서 모든(대선) 정보를 스마트텍으로 발송했다. 우리의 대선 표는 해외에 보내지고, 기타국에 보내졌다는 것을 당신은 믿을 수 있는가?”

전자투표기 도미니언은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이자 사회주의 지도자인 차베스가 제작하고, 또 그의 두 맹우(盟友)가 소유하고 있어 남아프리카 부정선거에 사용했다.

이는 한개 “국제적인 음모이고”, “중대한 증거가 표명하는데 전세계에서 가장 나쁜 몇몇 공산주의 국가에서 우리의 대선에 대해 외국간섭을 실시했다.”고 파웰은 표시했다.

##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청문회를 열어 주 참의원은 대선 결과 인정을 철회할 것을 결의하다

11 월 25 일, 펜실베이니아주 참의원은 청문회를 열었고, 회의에서 여러명의 선서 증인들은 아주 설득력이 있는 2020 대선 중에서의 사기 현상을 폭로했다. 11 월 27 일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의원은 결의안을 제기해 주(州)장과 주무장관이 대통령 선거 결과와 이전의 주정부 인정을 철회시킬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에서 주정부의 행정과 사법부문은 입법기관에서 결정한 헌법권리를 침범했다고 제기했다. 2020 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주는 많은 기록된 위규와 부정행위가 발생해 선거 질서를 파괴했다. 때문에 “선거 결과는 쟁론이 있다.” 결의안은 주지사, 주무장관이 먼저 인정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철회시킬 것을 재촉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최고법원에 기소할 것이다. 이 결의의 임의는 중대해 기타주에 시범효력을 보일 것이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공화당 의원은 주의회는 주지사, 주무장관 손에서 헌법이 부여한 이주의 선거인단 대표 임명의 권리를 회수할 것을 쟁취하겠다고 표시했다.

## 파웰의 백 페이지 되는 대선 사기 소송장

11 월 25 일 밤, 파웰은 조지아주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04 페이지 되는 이 소송장에는 수백건의 부정 대선안례를 열거하였다.

소송장 2 부는 이미 인터넷에 올려 대중에게 공개했다. 한 평론에서는 중량급 소송장은 법률폭탄의 어머니를 던진 것과 같다고 인정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인은 홍콩, 이란, 베네수엘라와 세르비아 등 지역에서 조종하여 선표 수치를 왜곡했다는 연루 혐의가 있다. 대선 사기계통의 배후에 중공에서 온 자금으로서 외국세력이 대선을 조종했다는 증거는 압도적이다고 파웰은 특별히 제기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공화국이 공산당인이 절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편집 / 이리



# 대통령 법률팀은 사기 대선에서의 8 대 죄명으로 바이든에 소송을 제기하다



▲ 11 월 19 일,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집단 상대로 최소 8 대 죄명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 1 감사위원(監票員)들이 핵심 개표 과정 감독을 거부하다

많은 우편투표는 감사위원이 검증 서명을 하지 못한 전제하에 개표하였기에 이런 대선 표는 “무효”이다.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에서도 개표과정을 감독받지 못한 대선 표가 수십만 표가 된다.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거부 당하거나, 공격 당하거나, 혹은 개표현장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 감독해야 했다.

미시간주 투표중심에서, 새벽 4 시에, 수천수만표 대선 표가 휴지통, 종이박스, 비닐봉투에 담긴채 차로 운송됐다. 그들은 모든 공화당 소속 참관인을 내쫓았다. 도미니언 회사 직원 3 명이 증언한데 따르면 운송된 대선 표는 모두 바이든 표인데다 우편투표지 봉투에는 서명이 적혀있지 않았다. 6 만~10 만표 정도 가짜선표가 집계됐을 수 있다.

## 2 민주당의 관할 지역에서의 법적 불평등

민주당 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州) 대법원에서 선

거규정을 세웠다. 민주당 관할 지역에서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무효처리돼야 할 부재자·우편투표를 선관위 직원 등이 직접 채워 넣어 유효표로 만드는 작업이 허용됐다. 하지만 공화당 관할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 3 현장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이미 ‘투표된’ 사람들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시(市)에서는 다수의 유권자가 현장에서 잠정투표를 시도했지만, 이미 투표권이 행사됐다는 안내와 함께 투표가 거부됐다고 전했다.

## 4 선표 기재 누락된 부분을 찾지 말고 우편투표 발송일자를 변경하라는 선관위 지시

선거 공무원은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기에 기타 지역에서 디트로이트로 와 투표를 하는 불법행위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 5 바이든 표만 여러 번 중복 집계

필라델피아, 미시간주의 수천명의 증인이 같은 투표지를 서너 차례 이상 반복 개표했는데 어떤인은 혼자서 서너 차례 개표했다 고 선서 증언했다. 단지 미시간주 한

지역에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14 만표가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30 만 표를 앞섰다.

## 6 위스콘신주의 사전등록 안 한 부재자투표도 집계

밀워키시에서는 6 만 표, 매디슨시에서는 4 만 표가 사전등록 없이 투표됐는데도 유효표로 인정돼 개표됐다.

## 7 대규모적인 과잉투표

보통 투표율이 선민의 80% 이면 이미 괴이한 현상이고, 150%, 200%, 300%에 도달하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이는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에는 이런 괴이한 지역이 많았다.

## 8 선거일 밤, 전자투표기가 멈춘 원인은 기존에 입력된 조작공식을 벗어나는 뛰어난 트럼프 득표수 때문

파월은 “도미니언 투표기가 무엇 때문에 선거당일 밤에 멈췄던 것인가? 원인은 모든 선거시스템은 내부적으로 바이든 승리에 맞춰 입력되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트럼프 득표 때문에 기존에 입력한 공식을 벗어나면서 이다. 하여 어쩔수없이 깊은밤에 갑자기 투표기를 멈추고는 급히 조작표를 만들어 집계했다.”고 전했다. 대기원

## ■ 박해 진상 ■

## 10 월, 65 명 파룬궁수련생 불법 징역형 선고받다

[ 명후이왕 ] 명후이왕 통계에 따르면 2020 년 10 월 ‘추석’, ‘중양절’ 기간에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은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은 65 명이다. 중국 20 개 성, 자치구, 직할시 등 39 개 도시에서 발생한 박해사건이다. 불법적인 판결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산둥성 16 명, 료닝성 8 명, 사천성 7 명, 광둥성 6 명이다. 10 월에, 65 세 이상의 파룬궁수련생 19 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그중 가장 고령자는 80 세 었다. 2020 년 1 월부터 10 월까지 누계 375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중공에 의해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가족이 공경하게 ‘파룬따파하오’ 를 외워 복을 받다



[ 명후이왕 ] 우리 집에서 나 혼자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한다. 80~90 세 노인을 포함한 우리 가족들이 위험에 봉착했을 때 공경하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_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워 모두 혜택을 받았다. 가족들은 모두 대법의 신기함과 사존님의 자비를 체험했다.

장모님은 92 세이며 선량하고 남을 잘 도우신다. 그러나 음주와 흡연을 하며 오지랖이 넓고 고집이 아주 세셨고 늘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셔서 누구도 말리지 못했다. 또 장모님은 저녁이면 왠지 두려워져 반드시 누군가 옆에 있어야 했고, 때로는 술을 많이 마시면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셨으며 부축해 침대에 눕혀드리면 또다시 바닥에 내려와 누우셨다. 또한, 손으로 소파를 긁어 망가뜨렸고 몸이 괴롭다고 하시면서 한곳에 잠시도 머물지 않으셨다. 사실은 부체(附體)가 괴롭히는 것이며 아내는 장모님은 젊을 때부터 이랬다고 했고 가족들은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장모님은 처음에 파룬궁을 며칠 연마했으며 ‘전법륜(轉法輪)’을 한 번 읽으셨으나 나중에 수련하지 않으셨다. 장인 어른이 세상을 뜨시자 장모님은 요양원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소란을 피우셨다. 장모님의 자녀들은 모두 대법을 믿지 않으며 진상을 말해도 듣지 않아 장모님에게 대법을 수련하시라고 권하기 어려웠다. 나는 장모님이 요양원에 가신 후 퇴원할 때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를 외우라고 했으며 ‘파룬따파하오’만 외우면 두렵

지 않고 괴롭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자 외우기 시작하셨으며 나도 함께 외웠다. 그런데 장모님은 젊을 때 기독교를 믿어서 외우는 것을 결국 견지하지 못하셨고 또 소란을 피우셨으며 여러 번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났다. 가정부를 고용해 보살폈지만, 장모님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으며 너무 아파서 “아이고, 아이고”라고 외치셨고, 억지로 또 일어나 걸을 수도 앉을 수도 없어 하며 반복해 아프다고 하셨다. 의사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요양해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가정부의 휴일이면 나는 때때로 가서 장모님을 보살피면서 ‘파룬따파하오’를 외우라고 했고 장모님은 흔쾌히 외우셨다. 그러자 장모님은 점차 술을 마시지 않고 흡연도 하지 않으셨으며 허리도 그다지 아파하지 않으셨다. 결국, 나중에 바닥에 내려 걸으실 수 있었는데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평온한 할머니로 변했다. 대법은 이렇게 신기하다!

한 번은 장모님이 숨쉬기가 어려워 말을 똑똑히 하지 못해 가족 6~7 명이 뵈러 왔으며 나도 가서 말했다. “장모님, 우리 빨리 파룬따파하오, 쯔싼런하오(真善忍好\_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워요!” 장모님은 따라서 외웠으며 두 번 외우자 바로 정상이 되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다. 현재 장모님은 스스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으며 흰 머리카락 일부분이 검은 머리카락으로 변했다.

나의 어머니는 89 세이며 학교에 다니지 못해 지식이 없지만, 옛날 이치를 믿으면서 아주 선량하며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인과응보를 믿으셨다. 내가 수련하면서 어머니도 며칠 연마하다가 나

중에 연마하지 않으셨다. 1999 년 ‘7.20’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해 광적인 박해를 시작한 후 나는 어머니에게 사부님의 설법 동영상 을 보시라고 했다. 어머니는 잘 보시면서 비디오 재생기 사용법도 배우셨다. 어머니는 “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좋으며 정말로 맞다!”고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불가(佛家)의 수련 고덕대법(高德大法)입니다!” 라고 나는 답했다. 어머니는 사부님의 설법 동영상을 볼 뿐만 아니라 사부님 법상에 향을 올리며 아주 존경하신다.

어느 한 번은 한 이웃이 복도에 가짜 약을 판매하는 전단을 파룬궁이 붙였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반박하면서 말씀하셨다. “왜 무엇이나 파룬궁을 탓하나요!”

어머니는 원래 온몸에 병이 나서 건강이 좋지 않아 기운이 없으셨다. 사부님의 설법 동영상을 보는 외에 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를 묵념했으며 때로는 한밤중에 깨어나면 몇 번 읽으셨다. 점차 활기가 넘쳤으며 건강해 지시고 흰 머리카락의 많은 부분이 검은색으로 변했다. 함께 일했던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보고 말했다. “당신은 왜 늙지 않나요?”

어머니는 한평생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셨다. 현재 흰 머리카락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으며 정신도 흐리멍덩하지 않고 굽은 허리도 곧게 펴졌으며 빨래도 혼자 하신다.

2018 년 설에 어머니는 가슴이 아프셔서 CT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니 의사가 폐암이라고 했다. 내가 의사에게 확진 가능성을 물으니 80% 라고 하면서 뒷일을 준비하라고 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며칠 입원하면 된다고 하면서 ‘파룬따파하오’를 매일 외우시라고 했다. 어머니는 “알았어”라고 답하셨다. 며칠이 지나 검사 결과 폐암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모두 기뻐했다.

글 / 흑룡강성 파룬궁 수련생